



##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개선(계약주체 일원화)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1803(2015.10.23.)호

2. 우리 부는 전국 초·중·고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전국 8,216개교에 예술강사 4,916명을 파견하여 국악, 무용 등 8개 장르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우리 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밀착형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중앙·지방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의 권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각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국악운영단체를 지정하여 예술강사의 선발 및 채용, 관리 등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학교예술강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역할분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예술강사 노사교섭과 예술강사 계약주체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제기되어 여러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우리 부는 각 주체 간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2015.6.1.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환경변화 측면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5. 이에, 우리 부는 2017년 부터 학교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예술강사의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체간의 협의를 거쳐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다만,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준비 사항(업무 추진체계 재설계 및 역할 분담, 실행을 위한 협의 등)과 지원학교 선정 및 강사 선발 등의 2016년도 사업 추진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2016년도 학교예술강사 사업추진에 각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들이 현재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인생략

행정주사보 **김준환** 행정사무관 **강지태** 문화예술교육과장 11/09 **서영길**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교육과-2387 ( 2015.11.09. ) 접수 기획홍보-1902 ( 2015.11.09.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문화예술교육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763 /전송 044-204-8481 / [jhk0901@mcst.go.kr](mailto:jhk0901@mcst.go.kr) / 공개